



제품 기능화, 품질 차별화로 수익성 높여

무결점 품질로 수요창출 기대

정 해 군 / (주)화승인더스트리 생산부 부장

[사] 한국포장협회가 매년 포장인의 날 실시하고 있는 제9회 한용교포장인상 시상식에서 (주)화승인더스트리 생산부 정해군 부장이 생산·품질관리부문 수상자로 선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상의 영광이 어색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지만 포장인으로서의 업무에 처음 접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새롭게 도전하는 열망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정해군 부장은 “지난 시간 동안 물에 들어가지 않으려 사리던 맨몸을 찬물에 밀어 넣어 주셨던 (주)화승인더스트리 사장님을 비롯한 선배님들, 그리고 필름 제조라인에서 세계 최고의 품질과 생산성을 지향하며 생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화승인더스트리 생산부 가족들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전했다.

정 부장은 (주)화승인더스트리에 입사한 이후, 필름제조 공장건설에 참여, 셋업(Set Up)



을 마친 뒤 공정기술을 적용해 품질 개선 및 생산효율을 높이는 생산 업무를 도맡아 왔다.

현재 BOPP, PET, 통기성, 증착필름 생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해군 부장은 무결점 품질을 지향, 원재료, 필름제조, 후가공 공정에 대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국·내외 필름 메이커와의 품질경쟁에서 우위를 지

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정해군 부장은 3층(3Layer) BOPP 필름 제조장치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시운전 과정에서 남다른 노력으로 공정을 파악해 국내 원료 Maker에 Skin용에 대한 PP Resin의 흐름성지수(MI) 상향을 처음 주장한 장본인.

그는 “1988년 겨울 6개월 동안 겁 없는 열정으로 현장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며 독일엔지니어들과 국내 최초 3층 공압출 필름라인을 Set Up 후 시운전시 필름을 보는 순간이 사회

생활을 통해 가장 보람되고 자긍심이 느껴졌던 때였다고 회상한다.

“지난 시간들의 자기노력이 현재의 제가 있게 해준 소중한 재산임을 느낀다”는 정 부장은 당시 실제 Line에 적용하여 3층 BOPP 필름의 두께 균일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켜 국내 BOPP Skin용 원료개질에 크게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재 한국포장기술인협의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는 1995년 통기성필름 생산팀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통기성 필름과 부직포를 합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필름의 원료개질 및 설비단품의 개선을 통해 In Line에서 접착제 없이 부분 열합지 초고투습 필름을 국내 최초로 개발, 상업화 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유럽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도 했다.

소량 다품종화되고 품질의 차별화가 강조되는 등 다양하게 생산환경이 바뀌는 어려운 상황에서 생산 현장이 먼저 변화해야 된다는 슬로건을 들고 조직적인 교육훈련을 추진하기도 했던 정해군 부장. 그는 “장치산업에서 모든 일은 조직과 과학적인 시스템이 하는 것은 기본이며 생산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장치, 사람, 원부자재, 공정조건, 정보 모든 부분을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한다. 정부장은 “모든 문제의 답은 결국 현장에 있다”며 “구성원들이 생산품질에 대해 세심한 부분까지 노력할 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해소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관리의 본질적 목표에 이르게 된다”고 전했다.

“선진 합성수지 메이커에 비해 국내 시장은 특화된 기능성 수지의 채택범위가 좁은것 같습니다. 엔드 유저(End user)가 요구하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업계 모두가 찾아나서 새로운 범위의 시장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편화된 포장산업 시장에서 더 이상 제살깎기식 경쟁의 사고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정해군 부장. 그는 산업간 새로운 기능의 수요의 시장을 창출을 통해 전체 시장규모를 키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포장관련 단체와 업계가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포장산업의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지쳤던 순간도 있었다고 토로하는 정해군 부장.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을 통해, 업계에 받을 땀었던 뜨거운 열정을 되새기겠다고 전하는 그가 포장산업의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